

■ 업무사례 ■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천공항컨소시엄이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천공항컨소시엄이 미얀마 민간항공청이 발주한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은 미얀마 교통부 산하 민간항공청(DCA, Department of Civil Aviation)이 발주한 총 사업비 11억불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의 법무법인은 물론 시공사·운영사·금융·회계법인 등이 종합 진출하여 우리 기업에 상당한 경험과 부가가치를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 건설경제 - 미얀마 신공항사업, 금융·회계·법무법인 공동진출(2013. 8. 13.)
- 정책브리핑 - 인천공항공사, 미얀마 신공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13. 8. 11.)
- 연합뉴스 - 인천공항,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2013. 8. 11.)
- 국민일보 - 인천공항공사, 미얀마 신공항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2013. 8. 11.)
- 파이낸셜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 미얀마 신공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3. 8. 11.)

[담당 변호사]

지평지성 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JIPYONG JISUNG MYANMAR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



유정훈 변호사 · 고세훈 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미얀마 현지법인장